

□고운 말 쓰기 운동

교과서에서도 죽어 가는 우리말

—문교 정책에 희생된 우리 토박이말들—

배 우 리
(한국 땅이름학회 회장)

한 나라의 문교 정책은 그 나라의 말글 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편찬 방향이나 내용 전개는 우리 말글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우리의 말글 정책은 광복 이후부터 먼 앞날을 바라보고 일관되게 한 목표를 갖고 전개해 오질 못했다. 정책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그 때 그 때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남발해서 사회의 혼선을 빚게 한 예가 많았다. 그래서 아직도 용어, 외래어 표기, 한자 혼용 문제 등에서 통일이 안 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사회에서는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을 뭐…….'하면서 나라의 어문 정책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다른 문제는 다 접어 두고, 광복 이후 우리의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들이 순 우리말쪽에서 한자말로 옮겨 간 보기들을 몇 짝어 보면서 우리말이 교과서에서조차 쫓겨 난 사례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교과서 개편 때마다 죽어 간 우리말

광복 이후 교과서에서 우리말을 찾아 넣거나 새로 지어 넣는 일에 가장 주도

적으로 일해 온 사람은 최현배이다.

일제 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광복 직후 미군정 당시 문교부 편수국으로 들어가 국장으로 재임(1945.9~1948.9)하면서 우리말 정책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다. 특히, 그는 우리의 말글 생활이 '토박이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굳은 신조로, 새로 만들어 낸 교과서에 순수 우리말을 많이 담아 넣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많은 말들이 그 당시에만 들어지거나 옛말을 현대적으로 다듬은 것들이다.

그는 6·25를 전후한 시기(1951.1~1954.1)에도 역시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때도 역시 많은 새로운 말들을 교과서에 담았다.

이 때 만들어지거나 찾아 넣은 교과서 속의 많은 우리말들은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 가고 난 얼마 뒤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 여러 차례의 교과서의 개편이 따르면서 이 말들은 하나하나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도 1980년대 초의 초중고교 교과서 전면 개편 때가 가장 심했다.

이 때 많은 순수 우리말이 죽어 나갔는데, 여기서는 그 때 우리 교과서에서 사라져 간 우리말들의 예를 많이 들어 보려 한다.

자연 교과서에 가장 심해

'82년도와 '83년도에 개편된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니 과거의 교과서에서 익히 써 왔던 많은 우리말들이 한자말로 둔갑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러 교과서 중에서 '자연' 교과서가 가장 두드러졌다.

광복 후에 지금의 자연과에 해당했던 과목은 '잇과'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뒤, 교과 과목 이름이 몇 번 조정되면서 이 이름은 사라져 버렸다.

국민학교의 자연과는 그 어느 과목보다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해야 했다. 여기서 선택된 용어는 그대로 '학술 용어'가 되기도 하고, 일반의 귀에 깊숙이 심어져 사회의 통용어로 깊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에서의 '용어 변경'은 인체 단락 부분에서 가장 심했다. 인체 관련 단원은 사람의 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팎으로 엄청난 이름들이 나열되게 마련인데, 이미 광복 직후부터 잘 선택돼 쓰이던 순수 우리말들이 거의 다 한자화해 버렸다.

그 일부를 살펴보자.

- 큰골 → 대뇌
- 작은골 → 소뇌
- 숨골 → 연수
- 등골 → 척수
- 살갓 → 피부
- 힘살 → 근육
- 염통 → 심장
- 피 → 혈액
- 피들기 → 혈액순환
- 숨쉬기 → 호흡
- 핏줄 → 혈관
- 귀청 → 고막
- 오줌보 → 방광
- 막창자 → 맹장
- 끈은창자 → 직장
- 가로막 → 횡격막
- 오줌관 → 요관
- 오줌길 → 요도
- 샘창자 → 십이지장
- 밥줄 → 식도
- 밥통 → 위

이러한 한자화의 현상은 중고교 교과서에까지로 확대되고, 각 출판사에서 내는 학습 참고서까지 덩달아 한자말로 돼 갔다.

- 뼈마디 → 관절
- 날름막 → 판막
- 숨관 → 기관
- 숨관가지 → 기관지
- 오른쪽염통방 → 우심방
- 왼쪽염통방 → 좌심실

이러한 예는 오직 인체 단원에서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영양소' 단원에서는 영양소의 이름이, '바위'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바위의 이름들이 모두 한자말로 옮겨져 버렸다.

그 보기를 들어 보자.

- 흰자질 → 단백질
- 녹말 → 합수탄소
- 기름기 → 지방
- 바위 → 암석
- 불에된바위 → 화성암
- 물에된바위 → 수성암, 퇴적암
- 변해된바위 → 변성암
- 석돌 → 화강암
- 변석돌 → 편마암
- 횃돌 → 석회암
- 도랫돌 → 사암
- 빨돌 → 이암
- 자갈돌 → 역암

그 밖의 '땅'이나 '기후' 또는 '동물'과 관련된 단원에서도 많은 우리말들을 한자말로 옷을 갈아 입혔다.

- 땅거죽 → 지표
- 땅껍질 → 지각
- 큰물 → 홍수
- 사리 → 만조
- 조금 → 간조
- 물바람 → 육풍
- 바닷바람 → 해풍
- 쇠붙이 → 금속
- 젓빨이짐승 → 포유동물
- 물물짐승 → 양서류
- 살기다툼 → 생존 경쟁

광학 단원에서도 몇 낱말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이 그런 보기이다.

- 끈계 나아감 → 직진
- 되쏘임 → 반사
- 꺾임 → 굴절

특히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단원에서도 무척 많은 우리말들이 한자말들

로 둔갑해 버렸다.

- 김내기 → 중산작용
- 녹말만들기 → 광합성, 탄소동화작용
- 잎파랑이 → 엽록소
- 해급성 → 항일성
- 땅급성 → 항지성

산수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고

이러한 ‘한자화(漢字化)’의 현상은 자연 교과서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국민학교 산수 교과서에도 많은 낱말들이 바뀌어 버렸다. 광복 직후에는 지금의 ‘산수(算數)’에 해당하는 과목의 이름이 ‘셈본’이었는데, 지금도 5·60대의 어른들 중에는 이 ‘셈본’이란 과목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당시에 만들어졌던 말인 ‘세모’나 ‘네모’같은 말은 이미 교과서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학교 저학년이나 어린이들(유아) 교재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볼 때, 이미 한번 굳혀진 말은 여간해서 없어지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속셈’이란 말도 초기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말이다. 이 말도 교과서에는 ‘암산’이란 말로 바뀌어 버렸지만, 지금도 ‘암산’이란 말보다 ‘속셈’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학원 이름 중에 ‘속셈학원’의 간판을 붙인 곳이 얼마나 많은가.

산수과에서는 도형에 관련된 이름들이 무척 많이 바뀌었다.

- 나란히꼴 → 평행사변형
- 펼친그림 → 전개도
- 원둘레 → 원주
- 맞선꼴 → 대칭도형
- 맞모금 → 대각선
- 맞각 → 대각
- 나란하다 → 평행하다
- 셈 → 계산
- 어렵값 → 근사값
- 줄인자 → 축적

- 줄인그림 → 축도
- 늘인그림 → 확대도

예를 들어 산수 교과서에서 흔히 쓰이는 '다른 셈을 하여라'가 '다음 계산을 하여라'로 되었고, 어느 펼친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엔 어김없이 '펼친그림'이 아닌 '전개도'로 표기돼 있었다.

도형 이름에서 아직 '사다리꼴', '닭은꼴', '지름', '반지름' 같은 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말들도 언젠가는 다른 용어처럼 그 수명을 다할지도 모른다.

'.....모두 2,347입니다. 이것은 이천 삼백 사십 칠이라고 읽습니다.' (82년도 개편 교과서 산수 3-1, 8쪽)

'47'을 '마흔 일곱'이라고 읽지 말고, 꼭 '사십 칠'이라고 읽어야 하다니? 그렇다면 '7시'나 '12시'같은 시각도 '일곱 시'나 '열 두 시'로 읽지 말고 '십이 시'로 읽으란 말인지?

땅이름은 없고 지명은 있다?

오래 전의 저학년 교과서에는 몇몇 타악기 이름이 그 내는 소리를 따서 다음과 같이 순 우리말로 적은 적이 있었다.

- 찰찰이 (탤버린)
- 짹짹이 (캐스터네츠)
- 칭칭이 (트라이앵글)

그런데, 이 말들도 교과서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다른 악기 이름까지 덩달아 외래어로 바뀌어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풍금 → 오르간
- 피리 → 리코더

'피리'와 '리코더'는 구분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꾼 모양인데, '리코더'는 서양식 피리라고 볼 수 있으니 '양피리'나 다른 적당한 말을 써서 적으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월점(부호) 이름들이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줄임표', '쌍점' 등으로 우리말로 올라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잘 올라 쓰이던 몇 낱말들이 한자말로 바뀌어 버린 것

은 아쉬움을 준다.

- 글월 → 문장
- 월점 → 부호

‘이름씨’, ‘토씨’ 같은 품사의 이름들도 모두 ‘명사’나 ‘조사’같은 말로 바뀐 것도 큰 아쉬움을 준다.

상급 학교쪽으로 올라가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들어 있는 순수 우리말의 용어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한자어나 외래어 등이 들어 앉는다. 이것은 결국 우리말은 어려서나 쓰고, 자라서는 한자말 같은 것으로 다시 또 배우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만큼 학습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꼴이 된다.

사회나 교과서에서는 특히 지리 분야에서 우리말을 죽여 놓은 것이 많다.

- 서울 → 수도
- 땅이름 → 지명
- 땅모양 → 지형
- 날줄 → 경선
- 씨줄 → 위선

글쓴이는 아직도 ‘동남-서남’, ‘북씨-남씨’ 등의 날말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말의 ‘동경-서경’, ‘북위-남위’에 해당한다.

‘서울’이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땅이름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머릿도시인 ‘서울’을 이름(홀이름씨)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머릿도시(首都)’를 이름(두루이름씨)이다. 그래서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다.’ 해서 그 말이 잘못 되었다거나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서울’이 ‘수도’와 다르다고 해서 ‘머릿도시’의 뜻으로 쓸 때는 반드시 ‘수도’라고 써야 한다니?

국교 교과서에서는 또 ‘땅이름’을 ‘땅 이름’이라고 ‘땅’과 ‘이름’을 띄어 적고 있었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가면 이 말은 ‘지명(地名)’이란 말로 돼 버린다. 이것은 ‘지명(地名)’은 하나의 날말로 인정할 수 있으나 ‘땅이름’이란 날말은 하나의 날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땅이름’이란 말은 광복 이후부터 교과서에서부터 잘 울려 써 왔고, 지금도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날말이 아닌가.

‘대뇌’를 죽이고 ‘큰골’을 살려야

우리 세대엔 우리식의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말로는 ‘주체성’을 열심히 강조하면서 그 주체성에 거스르는 교육 정책 당국자들의 그릇된 생각과 정책은 당장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려면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글 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식이 아닌 우리식의 이름, 많은 말들을 귀에 익혀 주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교과서의 낱말 하나에도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뇌’를 죽이고 ‘큰골’을 살려야 그 속에 든 ‘얼’이 제대로 산다.

동물 몸 속에는 ‘가로막’이 있지만, 사람 몸에는 그보다 고급(?)인 ‘황경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얼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름’을 ‘직경’으로 뒤집고, ‘속셈’을 ‘암산’으로 고집하는 한자 사대주의에 물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힘주어 주장하지만, 이제라도 교과서 내용 중에 쓰이는 모든 용어들을 ‘우리식’으로 제대로 정리하는 작업을 크게 벌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 써있던 좋은 우리말들을 모두 찾아서 제자리에 되매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말이 살고, 이 땅에 우리의 얼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